

‘평화와 연대’ 오월광주서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

각국 인권 전문가·시민사회 참여
전쟁·폭력 맞서는 연대의 장 열어
17일까지 DJ센터서 프로그램 다채
여성재단, ‘오월 여성’ 역사 조명도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세계 각국 인권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광주에 모여 전쟁과 폭력에 맞서는 ‘평화와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네스코(UNESCO),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1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전 세계 인권 활동가, 국제기구 관계자,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억압과 갈등의 시대에 도시가 실천할 인권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포럼은 특히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해에 열려 의미를 더하고 있다. 1980년 5월,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가 도시 전체를 감싸며 인권의 정신을 일깨웠던 광주는 이제 그 기억을 세계와 나누며 인권 도시로서의 길을 넓혀가고 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지역 대표 인사들이 함께했다.

강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는 1980년 5월, 국가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연대와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도시”라며 “그 역사적 정신을 계승해 더 이상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일이 없도록 지구촌의 평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대훈 (사)피스모모평화/교육연구소장,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강기정 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신형석 (사)국민주권연구원장,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크리스토프 호이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파르하나 빈테 지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민주주의학생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위원.

화와 공존을 위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함께 나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는 ‘저항의 도시로 우뚝 서는 광주’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서 교수는 1980년 5월 신군부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조명하며 “광주는 인류사에 ‘권력에 저항한 도시’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어 “모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화해 정신까지 모두 5·18정신이 아우르고 있으며, 세계인권도시선언까지 한 광주는 세계인권의 정수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 ‘평화를 향한 지구적 연대’에서는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평화구축 연대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기조발제를 맡은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공동체의 미래’를 주제로 인권, 생태, 평화의 접점을 짚으며 생물다양성과 인권이 교차하는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대훈 (사)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는 시대에 군사화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속에서 자

율살상무기와 AI 기반 군사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며 “동북아 국가들이 주도, 확산시키고 있는 자율살상무기와 인공지능 무기를 규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장은 지방정부와 도시가 국제 정세 속에서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히난 소장은 “한국의 도시들이 남북 관계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역할은 세계 여러 갈등 상황에서 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본보기가 된

다”고 주장했다.

파르하나 빈테 지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민주주의학생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위원은 여성 시위자로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폭력적 억압 속에서도 여성들이 동등한 저항의 주체였음을 증언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여성 시위자에겐 고문이 덜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라디오를 들으며 새로운 사상자의 소식을 접했고, 두려움 속에서 연대했다”며 “나는 스스로를 여성 시위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의 악한 권력에 맞선 전사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포럼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 마을, 여성, 사회경제, 지구촌 반폭력 문화 확산 등 7가지 주제로 구성된 주제회의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국가폭력 등 다양한 폭력에 저항해 온 항쟁도시 사례를 공유하는 특별회의 등이 이어진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16일 ‘2025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을 주제로 여성의 시각에서 5·18을 조명하고, 국내외 여성 인권운동 사례와 향후 과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16일 오후 1시30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필독서로 선정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 차인표 작가의 북토크콘서트가 열린다. 17일 오전 10시에는 ‘이영미의 평화밥상’의 저자 이영미 작가의 원데이 클래스 ‘모두를 위한 평화밥상’이 진행된다.

신청·세부 일정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도, 저수온 피해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 온힘

양식어가 88개소 복구비 32억 지원

전라남도가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류 양식어가 88개소에 복구비 32억 원을 지원해 어업인 경영 안정을 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도가 제출한 피해 복구계획이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저수온 피해를 입은 여수와 고흥 양식어가 88개소에 재난지원금 32억 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용자금 24억 원이 지원된다.

피해율이 높은 53여가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수산정책자금 11종 164억 원 규모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

진다.

전남도는 어업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으로 어류 폐사체 처리비와 저수온 피해 양식장 가공·판촉비 4억 원을 편성해 피해 어업인에 대한 추가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경기침체로 양식수산물 출하가 지연되면서 저수온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피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단 시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다가올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계약심사’ 예산 절감·지역경제 효과 ‘톡톡’

자치단체 발주 공사·물품구매 심사
지난해 1247건…448억 절감 성과

전라남도가 운영중인 계약심사 제도가 예산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통해 지난해 44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 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지난해 5억 원 이상의 공사

(전문공사 3억 원), 2억 원 이상의 용역과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총 1247건, 1조 6261억 원을 심사했다.

이같은 계약심사 제도 시행(2008년) 이후 지금까지 총 1조236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전남지역 3212개 제품 1548억 원을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협의 방식의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해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반영토록 권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사급자재 350개 제품 192억 원을 도내 관급자재로 전환하는 등 성과를 냈다.

특히 시군을 찾아가는 주 1회 이상 출장심사(57회·287건)는 신청자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심사 기간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 신속집행을 하는 등의 행정 서비스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또 새로운 기준 적용과 누적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계약심사 실무기준 및 사례집을 발간, 시군에 배부해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전남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취지와 원가 계산 노하우, 최근 공무원가 산정 기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2025년 계약심사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 확대

창호 교체 등 최대 500만원 지원
올해 지역아동센터 등 대상 늘려

광주광역시가 노후건축물의 ‘녹색 변신’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한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은 민간 노후 건축물의 창호 또는 연탄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성능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시설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대상을 기존 에너지 취약계층 거주 노후주택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한다.

광주시는 오는 6월까지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대상을 선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창호 교체 13개소, 연탄보일러 교체 5개소, 창호 및 연탄보일러 동시 교체 2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해 에너지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시, 고향사랑기부 신규 답례품 25개 선정

KIA·광주FC 등 스포츠 굿즈 추가
전국 최초 생활형 돌봄서비스도

광주광역시는 지난 9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기부자 맞춤형 신규 답례품 25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광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기존 51개 품목에서 7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신규 답례품에는 가공식품, 축산물, 공예품을 비롯해 프로야구·축구 팬들을 위한 ‘프로스포츠 굿즈’, 전국 최초 생활형

돌봄서비스 등 실용성과 상징성을 겸비한 품목 등이 포함됐다.

신규 답례품 가운데 KIA 타이거즈 유니폼은 광주 고향사랑기부자에 한해 시중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광주FC 공식물 전용 쿠폰도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광주시는 스포츠 팬들의 자발적인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생활형 돌봄서비스 ‘정소를 부탁해’도 눈길을 끈다. 이 서비스는 기부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사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냉장고나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단순한 선물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복지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광주사회서비스원(안심돌봄센터)이 직접 운영해 신뢰도와 품질을 확보했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광주시민 누구에게나 제공된다.

또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광주 대표 떡전문 브랜드인 ㈜창역이 공급업체로 참여하는 등 먹거리 답례품의 경쟁력도 강화됐다.

신규 추가된 답례품은 오는 22일부터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상아 기자